

경남 도민의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과 피해 경험¹⁾

01. 연구 개요

02.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

03. 젠더폭력에 대한 안전도 및 불안도

04. 젠더폭력 피해 경험 및 시사점

- 젠더폭력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성차별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체적·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되는데, 최근 몇 년간 강남역 살인사건, 미투운동, 스토킹-데이트폭력에 의한 살해, N번방 사건 등 젠더폭력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면서 젠더폭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
- 특히 폭력양상이 다변화 되면서 젠더폭력의 전통적 유형인 가정폭력, 성폭력, 성희롱 등이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스토킹-데이트폭력, 그루밍,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. 피해 대상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증가세이고, 아동·청소년까지 확대되며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
- 중앙정부는 2019년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(2018.12.24.)이 시행되면서 젠더폭력의 유형을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행위(스토킹),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(데이트폭력)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(디지털성폭력) 등 7가지를 포괄하여 공적·사적 영역에서 가해져 왔던 광범위한 젠더폭력 행위에 대해 국가책임과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
- 경상남도는 「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」(2021.05.03.시행)를 기반으로 젠더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(14조)하는 등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. 향후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예방정책 및 인식개선과 대상자 맞춤형 대응조치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확대되어야 할 단계임

01. 연구개요

■ 조사 개요

- 조사기간 : 2022년 8월 22일 ~ 9월 8일
- 조사방법 : 구조화된 웹설문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
- 조사대상 : 경상남도 시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여성과 남성 1,000명

■ 조사 항목

- 층화 : 성별(2개), 연령별(4개), 지역크기(2개)
- 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p
- 조사항목 :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안전도 및 인식, 젠더폭력 유형별 피해경험(가정폭력,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, 스토킹, 데이트폭력, 디지털 성범죄), 폭력 가해자 및 발생 공간, 2차 피해여부, 피해자 지원에 대한 요구 등

1) 본 내용은 2022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[경남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실태조사]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한 것임

02.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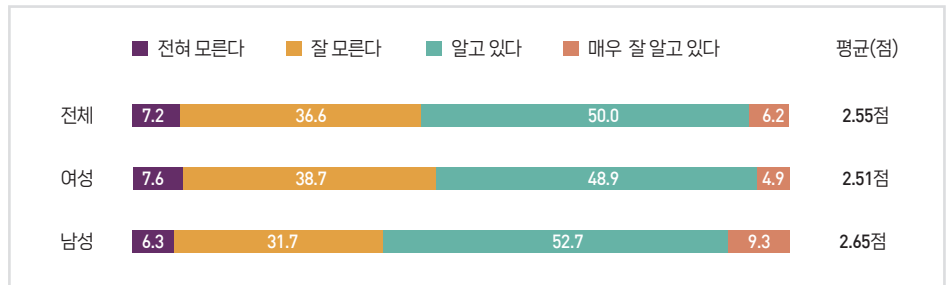
1) 젠더폭력 인지도 및 발생 체감도

■ 젠더폭력에 대한 인지도

- 젠더폭력에 대한 인지도는 4점 만점에 2.55점으로 '알고 있다'(매우 잘 알고 있다+알고 있다)가 56.2%, '잘 모르고 있다'(전혀 모른다+잘 모른다)가 43.8%임
- 성별로는 4점 만점에 여성 2.51점, 남성 2.65점으로 남성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, 연령별로는 20대가 2.68점, 30대 2.54점, 40대 2.51점, 50대 이상 2.48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젠더폭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, '알고있다'(매우 잘 알고 있다+알고 있다)가 여성은 53.8%, 남성은 62.0%로 나타났음

(단위: %,점)

그림1 젠더폭력 인지도_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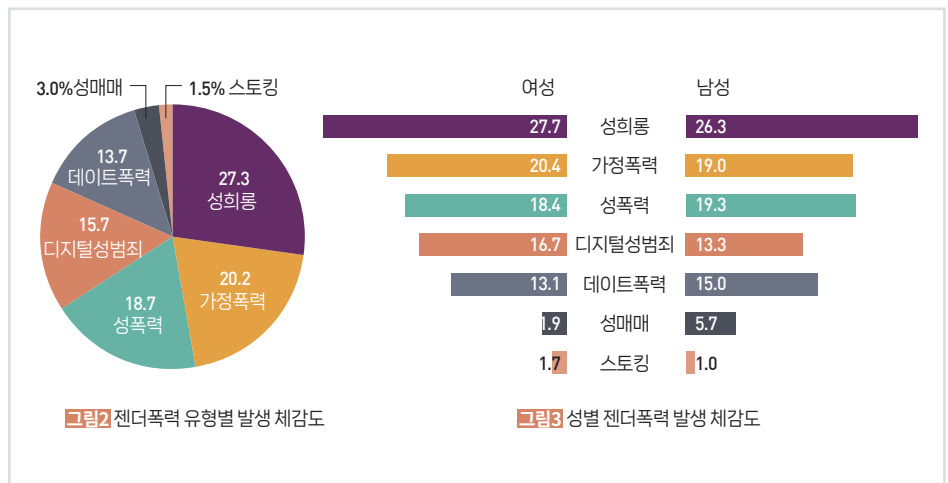
■ 젠더폭력 발생 체감도

- 젠더폭력 유형 중 주변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고 느끼는 유형은 성희롱이 27.3%로 가장 높고, 다음이 가정폭력 20.2%, 성폭력 18.7%, 디지털성범죄 15.7%, 데이트폭력 13.7%, 성매매 3.0%, 스토킹 1.5% 순임
- 젠더폭력 발생 체감도는 남성의 경우 차이를 보이는데, 남성은 성희롱, 성폭력, 가정폭력, 데이트폭력, 성매매, 스토킹 순으로 빈번히 발생한다고 체감함 (디지털 성폭력 없음)

(단위: %)

그림2 젠더폭력 유형별 발생 체감도

그림3 성별 젠더폭력 발생 체감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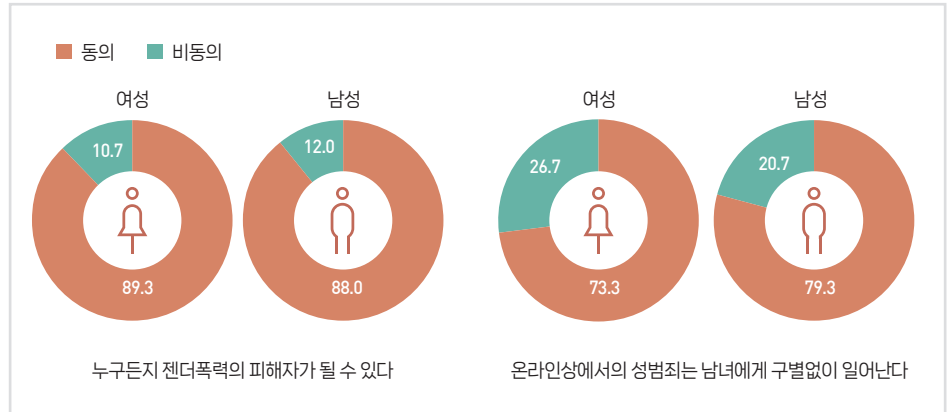
2) 젠더폭력 관련 사회적 인식

■ 젠더폭력 피해 발생 대상의 일반성

- 젠더폭력 피해 발생 대상에 대해 '누구든지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'에 88.4%가 동의하였는데, 여성은 89.3%, 남성은 88.0%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
- '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는 남녀에게 구별 없이 일어난다'는 의견은 75.1%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여성은 73.3%, 남성은 79.9%로 다소 높게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4 젠더폭력 피해 발생 대상의 일반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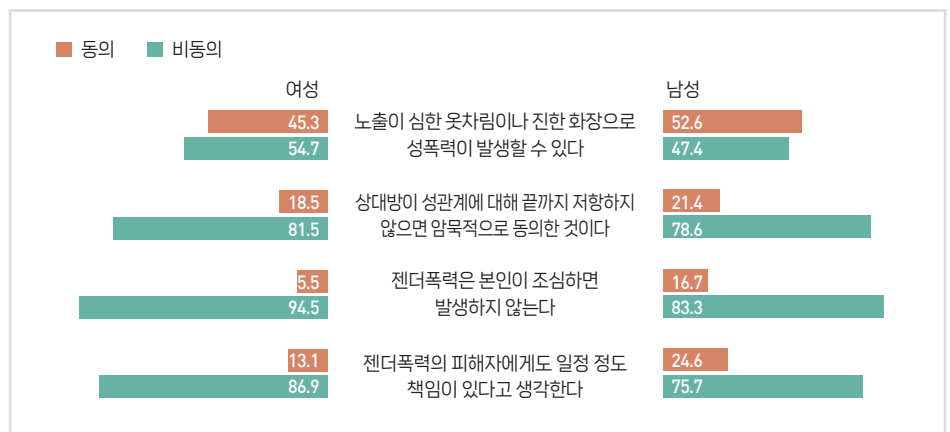


■ 젠더폭력 발생의 피해자 책임성

- 젠더폭력 발생의 피해자 책임과 관련해 '노출이 심한 옷차림이나 진한 화장으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'는 의견에 47.5%가 동의하였고, 여성은 45.3%가 동의하였고, 남성은 52.6%가 동의함
- '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다'라는 의견에 19.4%가 동의하였고, 여성은 18.5%, 남성은 21.4%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
- '젠더폭력은 본인이 조심하면 발생하지 않는다'는 의견에 8.8%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여성은 5.5%, 남성은 16.7%로 나타남
- '젠더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'는 의견에 16.6%가 동의하였는데, 여성은 13.1%, 남성은 24.6%로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5 젠더폭력 발생의 피해자 책임성



03. 젠더폭력에 대한 안전도 및 불안도

1) 젠더폭력 안전도 인식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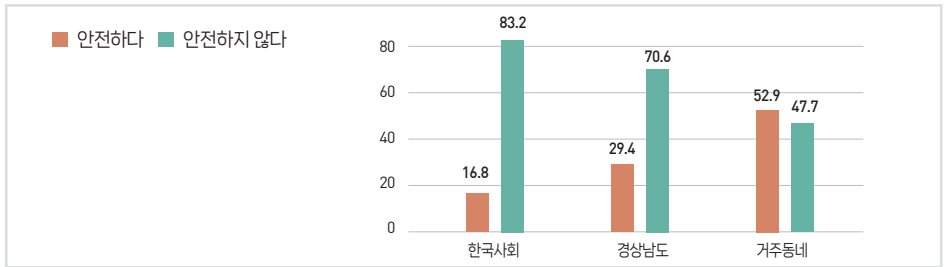
그림6 한국사회·경상남도·거주동네 젠더폭력 안전도 비교

■ 한국사회·경상남도·거주동네 젠더폭력 안전도 비교

• 한국사회·경상남도·거주동네의 젠더폭력 안전도를 비교한 결과

거주동네(52.9%) > 경상남도(29.4%) > 한국사회(16.8%) 순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함

(단위: %,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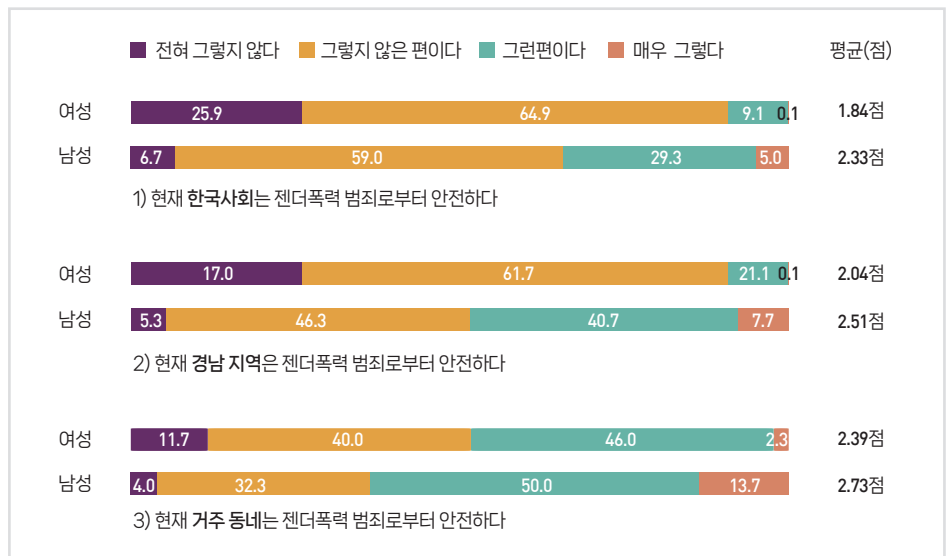


■ 성별 젠더폭력 안전도 인식 비교

- '한국사회 젠더폭력 안전도'에 대한 평가에 대해 83.2%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며, 16.8%만이 안전하다고 인식하여 4점 만점에 평균 1.98점으로 안전도를 낮게 평가함
- 성별로는 여성 1.84점, 남성 2.33점으로 안전도를 여성이 낮게 평가함
- '경남지역 젠더폭력 안전도'에 대한 평가는 안전하지 않다가 70.6%, 안전하다는 29.4%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높고, 4점 만점에 평균 2.18점으로 한국사회 안전도 보다는 높게 평가함
- 성별로는 여성 2.04점, 남성 2.51점으로 여성이 안전도를 낮게 평가함
- '거주 동네의 젠더폭력 안전도'에 대한 평가는 안전하지 않다가 47.1%, 안전하다는 52.9%로 안전도를 더 높게 인식하며, 4점 만점에 평균 2.49점으로 한국사회와 경남지역 안전도 보다 높게 나타남
- 성별로는 여성 2.39점, 남성 2.73점으로 안전도를 낮게 평가함

(단위: %,점)

그림7 성별 젠더폭력 안전도 비교



2) 일상생활의 상황별 젠더폭력 불안도 인식 비교

■ 일상생활 10가지 상황에서 젠더폭력 불안도 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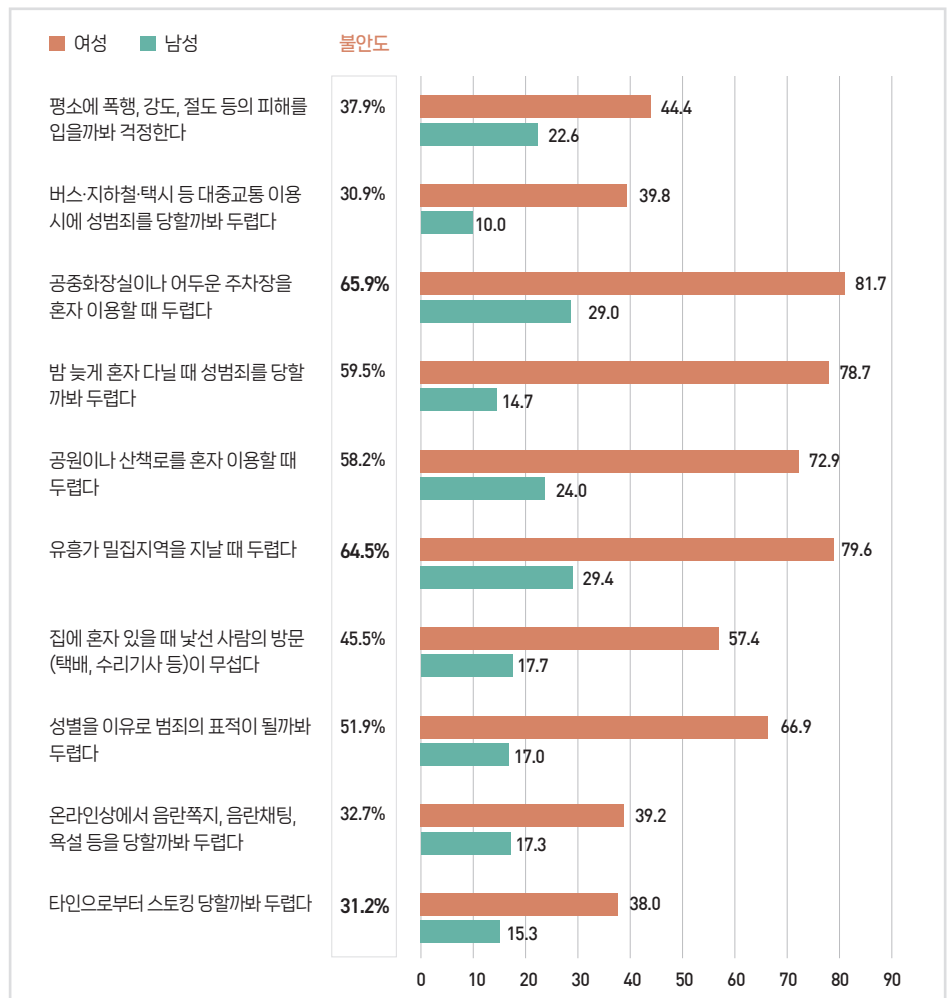
- 일상생활 10가지 상황에 대한 젠더폭력 불안도를 평가한 결과 '공중화장실이나 어두운 주차장을 혼자 이용할 때'가 65.9%로 불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다음이 '유휴가 밀집지역을 지날 때'가 64.5%, '밤 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 두려움'이 59.5%로 불안도가 높게 나타나고, '타인으로부터 스토킹 당할까봐 두려움'이 31.2%로 불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

■ 성별 일상생활 불안도 차이

- 일상생활 상황별 불안도 점수는 10가지 상황 모두에서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, 특히 '밤 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 두려움'이 여성 78.7%, 남성 14.7%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, '온라인상에서 음란쪽지, 음란채팅, 욕설 등을 당할까봐 두려움'이 여성 39.2%, 남성 17.3%로 불안도 차이가 가장 낮게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8 성별 일상생활 불안도
차이 비교



04. 젠더폭력 피해 경험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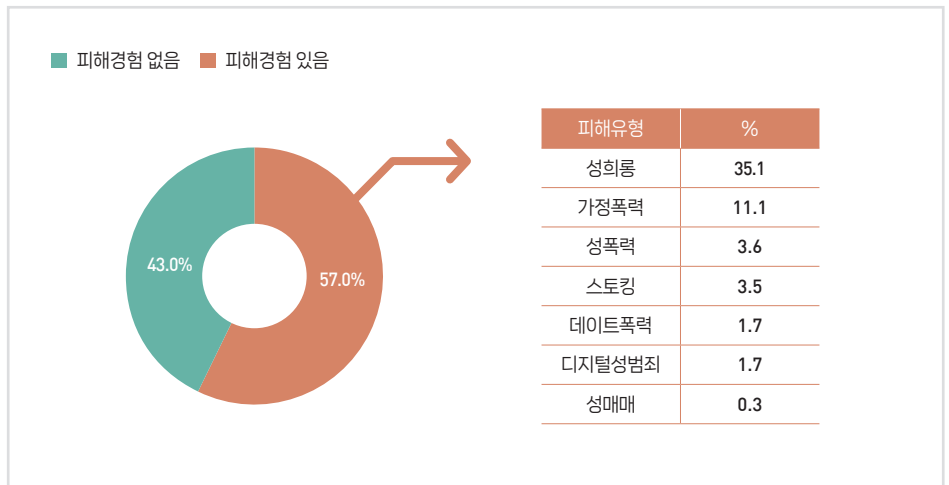
1) 젠더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

■ 젠더폭력에 유형별 피해 경험

- 젠더폭력 유형별로 피해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성희롱이 35.1%로 가장 높고, 다음이 가정폭력 11.1%, 성폭력 3.6%, 스토킹 3.5%, 데이트폭력 1.7%, 디지털성범죄 1.7%, 성매매 0.3%의 순임

(단위: %)

그림9 젠더폭력에 유형별 피해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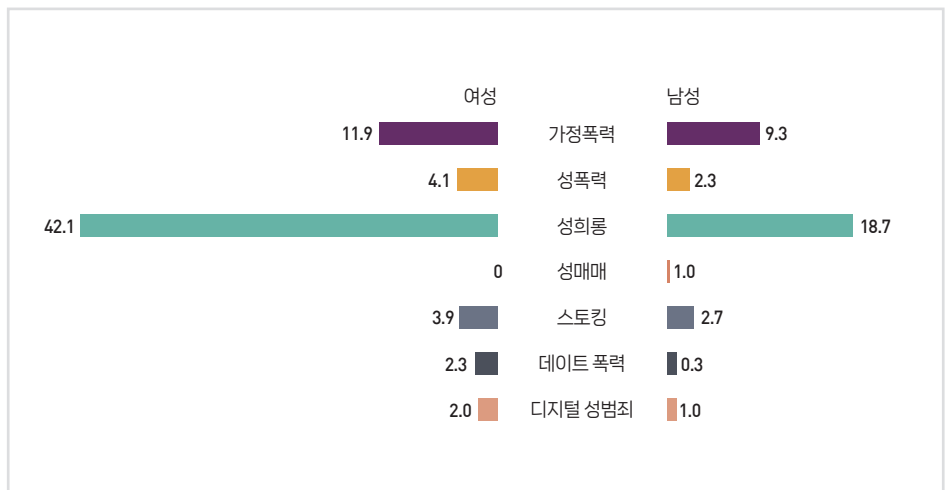


■ 성별 젠더폭력의 피해 경험 비교

- 모든 젠더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에서 여성의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고, 특히 성희롱의 경우 여성의 42.1%가 피해를 경험하여 남성 18.7%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 높게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10 성별 젠더폭력의 피해 경험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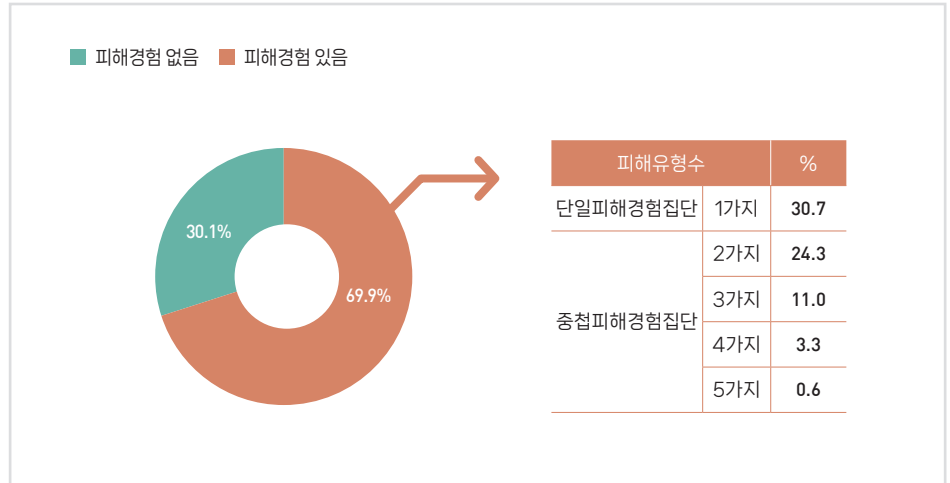
2)젠더폭력 중첩 피해 현황

■ 젠더폭력 중첩 피해 경험

- 젠더폭력 7가지 유형 중에 피해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는 30.1%, 한 번이라도 젠더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69.9%임. 이들 중 단일피해자는 30.7%, 중첩피해자는 39.2%임
- 중첩피해자 중 2가지 유형 피해경험자는 24.3%, 3가지 유형은 11.0%, 4가지 유형이 3.3% 임

(단위: %)

그림11 젠더폭력 중첩 피해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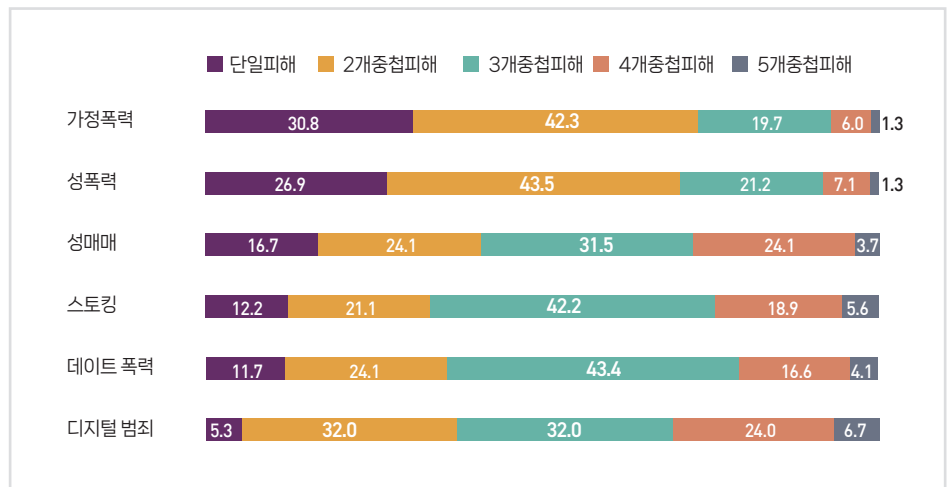


■ 폭력유형별 중첩 피해 현황

- 젠더폭력 유형 중 가정폭력, 성폭력은 2가지 중첩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, 가정폭력 42.3%, 성폭력 43.5%임
- 3가지 중첩 피해가 많은 젠더폭력 유형은 성매매 31.5%, 스토킹 42.2%, 데이트폭력 43.4%이고, 디지털 성범죄는 2가지와 3가지의 중첩 피해가 32.0%로 동일하게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12 폭력유형별 중첩피해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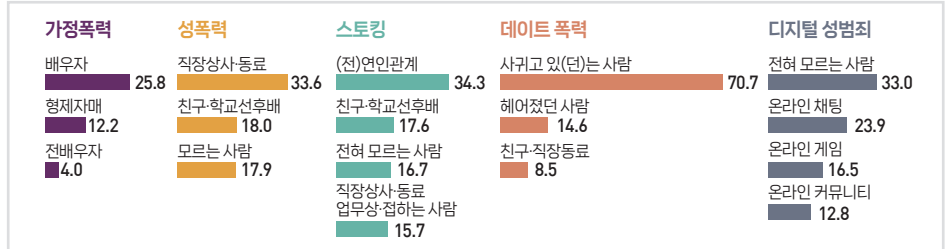


3)젠더폭력 유형별 가해자 및 2차 피해 경험

그림13 젠더폭력 유형별 주요 가해자

■ 젠더폭력 유형별 주요 가해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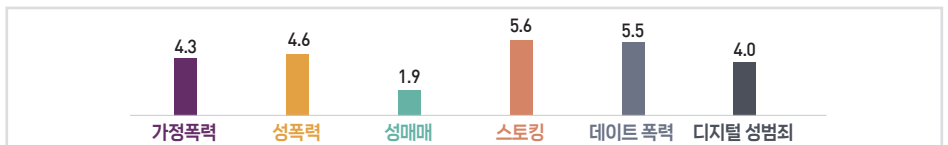
- 젠더폭력 유형별 가해자 1순위는 가정폭력은 배우자, 성폭력은 직장상사동료, 스토킹은 (전)연인관계, 데이트폭력은 사고기 있(던)는 사람, 디지털 성범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 (단위: %)



■ 젠더폭력 유형별 2차 피해 경험

- 젠더폭력 피해 경험자 중 평균 4.3%가 2차 폭력을 경험하였고, 스토킹 피해자가 2차 피해 경험이 5.6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다음이 데이트폭력 피해자 5.5%, 성폭력 피해자 4.6%, 가정폭력 피해자의 4.3%,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4.0%, 성매매 피해자 1.9%의 순으로 나타남
-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데이트폭력을 제외한 모든 폭력유형에서 '주변인'인 직장동료, 가족, 친척 등 가까운 지인에 의한 2차 피해가 가장 높게 타났으며, 데이트폭력은 1차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(단위: %)

그림14 젠더폭력 유형별
2차 피해 경험비교



4)젠더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시사점 및 사회적 인식개선 방안

- 젠더폭력에 대해 도민의 거의 절반인 43.8%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인식개선의 필요성 제기됨
- 특히 젠더폭력의 주요 피해자는 여전히 여성이 절대 다수이지만, 최근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남성 피해자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누구든지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
- 또한 젠더폭력의 발생 체감도와 실제 피해 경험이 가장 높은 유형은 성희롱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특히 직장에서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
-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마련이 필요함

표1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
정책 방안

구분	내용
젠더폭력방지 홍보활동 강화	TV/인터넷 등을 활용한 젠더폭력예방 홍보활동 강화
	성평등한 사회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강화
	대중매체에서 젠더폭력과 관련된 방송이나 표현 규제
다변화된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화	2차 피해 방지 공익 캠페인 제작 및 배포
	아동청소년 대상 학교 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강화
전도민 대상 교육 및 지원강화	데이트폭력, 스토킹, 그루밍 등 다변화된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강화
	생애주기별 젠더폭력 감수성 증진 교육 실시
	젠더폭력 범죄 신고 및 처리절차 교육 강화
	젠더폭력 예방 및 성평등 관련 활동 모임 지원